

노인 부부가계를 위한 생계비 산정에 관한 연구

이 선 형*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이 연 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길어진 노년기를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남은 과업이다. 이를 위해 각 가정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된다. 얼마의 노후자금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노후 월평균생계비이다. 노년기가 되면 한달에 얼마를 쓰며, 이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노후동안 필요한 자금을 산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월평균생계비를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기대여명을 고려하여 65~82세까지 생활하는데 평생생계비를 산출하였다. 노인가계가 가진 가계특성 및 원하는 생활수준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고려한 생계비도 산출하였다. 가계특성이란 건강상태, 취업상태를 의미하며, 원하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최저생계수준과 유락생계수준으로 조정하였다. 통계청의 1999년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부부 1,649가계를 추출하여 이와같은 사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후에 표준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에는 한달에 84만원 가량이 들며, 이를 두 부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평생생계비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환산하면 1억 5천만원에 해당되었다. 이는 비노인가계의 월평균 필요생계비의 81~83%에 해당되는 액수였으며, 비노인가계에 비해 주거비와 보건·의료비의 필요생계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표준생계비는 노인가계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강이 나쁜 가계의 경우 좋은 가계에 비해 약 5만 6천원가량의 월평균생계비가 필요했으며, 취업자가계는 비취업자가계에 비해 23만 2천원 가량의 추가 월평균생계비가 필요했다. 원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최저생활을 유지할 경우 월평균 56~71만원 정도가 필요해 표준생활보다 13~28만원이 덜 필요했다. 이를 평생생계비로 환산하면 1억~1억 2천 7백만원 정도가 필요해 표준생활을 유지할 경우보다 약 2천 3백만원에서 5천만원 가량이 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락생활을 유지할 경우 월평균 107~126만원 가량이 필요하며, 평생생계비로 환산하면 1억 9천만원에서 2억 2천 5백만원 정도가 필요했다. 이는 표준생계비보다 월평균 23~38만원이, 평생생계비로 따지면 약 4천~7천5백만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산정된 생계비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첫째,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을 산정하여 정부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설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둘째, 개별 가계의 재무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기업 및 금융기관에서의 활용이 가능하다. 지면상으로 정부의 공적연금의 급여수준 설정을 위해 노후에 필요한 소득대체율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기간에 비해 33~40%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표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10~20%의 소득이 추가로 필요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는 표준생활유지보다 10~20%의 소득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은 전적으로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에서 최소한 퇴직 전 소득의 30~40%는 보장을 해주고, 개별가계에서 추가의 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을 활용하여 준비하는 3단계 보장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